

한·중 차등 비교문에서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정도부사 의미 비교 분석

이은민*

【목 차】

1. 서론
2. 선행연구
3.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 현황분석
 - 3.1 차등 비교문의 중국어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의미 비교
 - 3.2 두 가지 분석기준을 통한 의미 분석
4. 결론

【초록】

본고는 17권의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의 차등 비교문에서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서의 그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중 인지 언어학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원형이론에서 Langacker의 연결망 모형을 바탕으로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연결망 모형 그리고 수평 차원에서의 원형이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차등 비교문 안의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에는 정도상의 표현 되는 크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도부사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차등 비교문 안의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을 살펴보면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격차 즉,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약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문이 되어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대상 간의 비교 정도치를 극대화 하거나 반대로 극소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이 차등 비교문 안에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반드시 양(量)의 격차를 고려해야 하며, 그중 본고의 연구를 통해 ‘중량(中量) 부사’ > ‘소량(小量) 부사’ 그리고 양(量)의 격차가 ‘0’ 일 때의 동일 선상에서 연이은 정도부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키워드】 更, 还, 정도부사, 원형이론, 연결망 모형, 원형적 차등 비교문, 양(量)의 격차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2017)의 일부 중 확장 연구 그리고 2018년 11월 대한중국학회에서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함을 밝힌다.

** 창신대학교 강사 (eunminlee9@naver.com)

1. 서론

비교는 사람들이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언어는 사람들이 능력을 인식하는 중요한 부분이고 사람들이 사고방식을 표현하고 소통하고 교류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그리고 비교는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태를 견주는 방법으로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우리는 일상에서 둘 이상의 사물이나 사태를 견주는 비교표현을 자주 사용한다.¹⁾ 이러한 비교를 나타내는 한·중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보다’와 ‘比’이다. 이러한 비교표현 중 비교되는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나타내는 차등 비교 중 본고는 17권의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의²⁾ 차등 비교문 중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본고의 연구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첫 번째로,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의 차등 비교문에서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서의 그 원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지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원형이론에서 Langacker의 연결망 모형³⁾을 바탕으로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연결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한국어에서 정도부사를 사용할 때의 그 순서를 살핌으로써 원형적 차등 비교문 형식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한·중 차등 비교문에 관한 연구에 있어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표현에 관한 학자들의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아래에 몇 가지 차등 비교문에서의 ‘更’과 ‘还’의 특징 그리고 한국어 정도부사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更’과 ‘还’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면, 陆俭明(1980)은 ‘更’과 ‘还’의 다른 점에 대해 세 가지로 정리해서 언급하였다. 그 첫 번째는 ‘更’과 ‘还’ 둘 다 비교를 나타낼 때 사용하지만,

1) 최중식, 「한중 비교표현의 대조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논문, 2017, p.2 참조.

2) 아래 17권(번역본 포함 총 34권)의 텍스트는 졸저(2017)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다.

※ 중국 현대 소설 (원본, 번역본)	※ 한국 현대 소설 (원본, 번역본)
1. 莫言, 『蛙』, 『개구리』	1. 신경숙(申京淑), 『엄마를 부탁해』, 『妈妈你在哪里?』
2. 莫言, 『食草家族』, 『풀먹는 가족』	2. 신경숙(申京淑), 『외딴방』, 『单人房』
3. 莫言, 『红高粱家族』, 『홍까오량 가족』	3. 공지영(孔枝泳),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我们的幸福时光』
4. 曹文轩, 『红瓦黑瓦』, 『빨간기와』, 『까만기와』	4. 공지영(孔枝泳), 『즐거운 나의집』, 『快乐我家』
5. 余华, 『活着』, 『인생』	5. 은희경(殷熙耕), 『새의 선물』, 『鸟的礼物』
6. 余华, 『兄弟』, 『형제』	6. 김애란(金爱烂), 『두근두근 내 인생』, 『我的忐忑人生』
7. 曹文轩, 『根鸟』, 『꿈의 무늬』	7. 정이현(郑梨贤), 『달콤한 나의 도시』, 『我的甜蜜都市』
8. 老舍, 『骆驼祥子』, 『낙타상조』	
9. 苏童, 『离婚指南』, 『이혼 지침서』	
10. 余华, 『许三观卖血记』, 『허삼관 매혈기』	

3)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2013, p.105 재인용.

비유를 나타낼 때 ‘还’만 사용이 가능하며, 두 번째는 ‘更’과 ‘还’ 둘 다 비교를 나타낼 때 무겁게 읽지만, 비유를 나타낼 때 ‘还’는 무겁게 읽을 수 없다고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更’은 세 가지 비교가 가능하지만 ‘还’는 세 가지 비교에선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⁴⁾

한국어 정도부사의 특징에 있어서 심도(2011)는 한·중 비교성 정도 부사들을 대상으로 의미·통사적 특징과 비교성 정도부사의 사용이나 대응규칙에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 보았다.⁵⁾ 비교성 정도부사에 관해선 극한사(가장, 제일)와 증감사(더, 덜, 한층, 일층, 더욱, 훨씬, 한결) 2가지로 나누었다. 그리고 비교성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는 [+비교성] 자질을 가지면서 ‘보다’ 비교 구문에 쓰일 수 없는 정도부사(‘가장’, ‘제일’)와, [+비교성] 자질을 가지면서 ‘보다’ 비교 구문에 쓰일 수 있는 정도부사(‘더’, ‘더욱’, ‘덜’, ‘일층’, ‘한층’, ‘훨씬’, ‘한결’)로 나눈다. 전자는 전체 속에서의 비교이고, 후자는 두 대상 간의 비교라고 하였다.⁶⁾

최중식(2017)은 ‘-와/과’, ‘-보다’, ‘-만큼’, ‘-처럼’, ‘-같이’, ‘-마냥’이 어떤 선행요소와 결합하고 또 어떤 관용적 의미들을 가지는지 등의 조사의 특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을 위해 ‘-와/과’, ‘-보다’, ‘-만큼’, ‘-처럼’, ‘-같이’, ‘-마냥’의 6개의 조사와 중국어와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였다.⁷⁾ 그중 한국어의 정도부사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 부사 ‘더’는 어느 확정된 기준에서 [+방향으로]의 정도의 이동을 나타내며, 두 번째, ‘더, 덜’이 Z(비교문의 서술어)가 형용사일 때는 필수적이 아니지만 동사일 경우에는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 밖에 정도부사에서 ‘더, 덜’을 제외한 다른 정도부사는 수량사와 공기하지 못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하였다.⁸⁾

위에서 언급한 선행연구는 본고의 연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탕으로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정도부사 의미 비교 분석 연구의 초석으로 삼아 고찰하고자 한다.

3.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 현황분석

본고는 10권의 현대 중국어 소설 그리고 7권의 현대 한국어 소설을 텍스트로 하여 차등 비교문 속의 중국어 ‘更’과 ‘还’,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한국어 의미 비교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차등 비교문의 중국어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 의미 비교

본고는 중국어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의 한국어 표현의 의미 비교에 관한 텍스트를 총 17권의 한·중 현대소설 속 차등 비교문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다.⁹⁾

4) 沈家煊, 「跟副词“还”有关的两个句式」, 『中国语文』, 第6期, 2001, p.483 재인용.

5) 심도, 「한·중 비교성 정도부사의 대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1, p.3 참조.

6) 심도, 위의 논문, pp.14-15 참조.

7) 최중식, 위의 논문, p.3 참조.

8) 최중식, 위의 논문, p.18 참조.

3.1.1 중국어 ‘更’과 한국어 의미 비교

1) 更- 더

- (1) 狮子, 我觉得跟你比跟王仁美更像夫妻。『蛙』
스즈, 런메이 보다 당신이 더 내 인연인 것 같다. 『개구리』
- (2) 可是虎妞比别人都更多着些危险。『骆驼祥子』
하지만 후니후는 다른 사람들 보다 더 위험했다. 『낙타상즈』
- (3) 聪明要更比无知更难。『我的忐忑人生』
因为隐藏聪明要比隐藏无知更难。 『我的忐忑人生』
- (4)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것 보다 더 나빠. 중요한 건 깨닫는 거야.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知道的东西根本不算什么, 从某种意义上说, 知道比不知道更糟糕, 重要的是领悟。『我们的幸福时光』

한·중 소설책 텍스트 속의 중국어 정도부사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의 표현은 원본 중국어 현대소설 텍스트 안에서 14개, 한국어 현대소설 텍스트에선 19개로 하여 총 33개로 제일 많은 수로 나타났다.

2) 更-훨씬

- (5) 刘作家权衡利弊, 觉得前途比婚姻更为重要, 只好在女朋友面前低头认错。『兄弟』
류 작가는 즉시 손익 계산을 해본 뒤 자신의 전도가 결혼 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득불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 『형제』
- (6) 可以拿到手的三十五块现洋似乎比希望中的一万块更可靠。『骆驼祥子』
하지만 수중에 쥔 35원이란 온전이 희망 속의 1만원 보다 훨씬 믿음직스러웠다. 『낙타상즈』
- (7) 왜냐하면 고운 정 보다는 미운 정이 훨씬 너그러운 감정이기 때문이다. 『새의 선물』
在一起经受折磨的过程中自然萌发的憎恶则是比喜爱更长久的感情。『鸟的礼物』
- (8) 그러나 이 작품의 이미지 활용은 흔히‘상징적 기법’으로 통하는 것들 보다 훨씬 복잡하면서 자연스럽다. 가령 백로들만 해도 그들이 ‘나’가 꿈꾸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를, 또는 작가가 되려는 그녀의 염원을 ‘상징한다’라고 간단히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외판방』
这部作品中的形象运用要比“象征性技巧”更为复杂而自然。即使只有白鹭, 我们也不能粗率地认为它们“象征着”“我”梦中美丽而宁静的世界, 以及成为作家的夙愿。『单人房』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훨씬’이라는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현대소

9)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에서 정도부사 ‘更’을 포함한 차등 비교문은 총 80개, ‘还’를 포함한 차등 비교문은 총 46개이다. 본고는 17권의 텍스트에서 ‘更’과 ‘还’가 들어간 예문을 모두 정리하였으나 여기에선 모두 언급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본고의 좀 더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출처(2017)에서 사용한 예문이 있음을 알려둔다.

설 텍스트 안에서 각각 4개, 총 8개로 나타났다.

3) 更-훨씬 더

(9) 这时候李光头已经可以走来走去了, 他还是很瘦, 比婴儿时的李光头更瘦了。『兄弟』

이때 이광두는 이미 걸음마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마른 상태였고, 갓난아기 였을 때 보다 훨씬 더 마른 상태였다. 『형제』

(10) 알고 있었다. 내가 오늘 그걸 했다는 걸. 실은 승찬 아저씨 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다. 『두근두근 내 인생』

我知道。今天我做到了。其实我比胜灿叔叔更知道。『我的忐忑人生』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훨씬 더’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 텍스트에서 5개, 한국어 텍스트 1개, 총 6개로 나타났다.

4) 更-좀더

(11) 只不过比前几年更显干瘦。『红高粱家族』

몇 년 전 보다 좀더 말랐을 뿐 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홍까오랑 가족』

(12) 그런데도 종구 보다는 좀더 나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다른 상대가 아니고 가장 처지는 종구를 선택했다는 점을 나는 이해할 수 있었다. 『새의 선물』

我能理解Miss李姐姐为什么不选择比宗九更好的 (相对而言)对象, 而是选择了最差劲的宗九。『鸟的礼物』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좀더’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한국어 소설 각각 1개씩 총 2개로 나타났다.

5) 更-더욱

(13) 这种干嚎比湿哭更动人, 无数的看殡百姓都被我父亲感动了。『红高粱家族』

이러한 울음은 젖은 울음소리 보다 사람들을 더욱 감동시켰으며 무수한 구경꾼들은 모두 나의 아버지에게 감동되었죠. 『홍까오랑 가족』

(14) 他们的爹恶狠狠地骂着, 好像他比阮书记更恨他们。『食草家族』

그들의 아버지가 독살스럽게 욕을 하는데, 로웬 서기 보다 더욱 심하게 그들에게 한이 맺혀 있는 것 같았다. 『풀먹는 가족』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욱’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 텍스트 안에서만 총 2개로 나타났다.

6) 更-더더욱

(15) 花树的倒影比花树本身更迷人。『食草家族』

거꾸로 비친 월계수 그림자는 원래의 월계수 보다 사람을 더더욱 미혹에 빠뜨렸다. 『풀먹는 가족』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더욱’의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7) 更-더한

(16) 그것은 하나의 연설문 보다 더한 웅변을 담고 있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那里包含着比演讲更厉害的雄辩。『我们的幸福时光』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한’의 표현으로 원본 한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8) 更-보다도 더

(17) 因为赵柔比我更讨厌学习。『快乐我家』

왜냐하면 쯔유는 나 보다도 더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아이니까. 『즐거운 나의집』

중국어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조사 ‘보다 뒤에 ‘도’라는 보조사와 함께 ‘더’를 덧붙인 표현으로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만 총 1개로 나타났다.

아래에서는 차등 비교문 중의 중국어 ‘还’에 상응하는 다양한 한국어 표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3.1.2 중국어 ‘还’와 한국어 의미 비교

1) 还-더

(1) 那年大旱, 蝌蚪比水还多。『蛙』

가뭄이 심한 해였는데, 올챙이가 물 보다 더 많아 보일 정도였어. 『개구리』

(2) 不过你也别担心, 天生人, 地养人, 周文王时人比现在还多, 可也没人饿死。『食草家族』

주나라 문왕 때는 지금 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지. 『풀 먹는 가족』

(3) 머리가 사람 얼굴 보다 더 큰 살아 있는 문어들, 싱싱한 전복들, 서울 보다 세배는 값이 싼 갈치 고등어 꽃게 사이를 오가다가 왜 너는 엄마를 생각했을까. 『엄마를 부탁해』

走过脑袋比人脸还大的活生生的章鱼和生龙活虎的鲍鱼, 走过比首尔便宜三倍的带鱼、鲑鱼和花蟹, 你为什么想起了妈妈? 『妈妈在哪里?』

(4) 우리 모두에게 전 보다 더 잘하려고, 그럼으로써 충분히 불명예를 보상하려고 애쓰는 것은 눈에 띄는 정도였다. 『새의 선물』

她对我们比以前还好，她希望以此来弥补离家出走的耻辱的想法非常明显。『鸟的礼物』

한·중 소설책 텍스트 속의 위에서 언급한 중국어 정도부사 ‘更’에 상응하는 한국어 ‘더’의 표현법은 중국어 ‘还’에서도 나타났다. 원본 중국어 현대소설 텍스트 안에서 24개, 한국어 현대소설 텍스트에선 3개로, 총 27개로 제일 많은 수로 나타났다.

2) 还-훨씬

(5) 我也知道那滋味,整天在床上,比下地干活还累,身体都活动不了。『活着』

나도 그 기분을 알지. 온종일 자리에 누워 있는 게 밭에 나가 일하는 것 보다 훨씬 피곤한 일이거든.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인생』

(6) 可你们看看一乐,对我有多亲,比二乐、三乐还亲。『许三观卖血记』

일락이를 좀 보라구. 나한테 얼마나 잘해? 이락이, 삼락이 보다 훨씬 잘한다구. 『허삼관 매혈기』

(7) 나 보다 훨씬 어린데도 부모가 논밭 일을 하는 동안 밥을 해먹거나 동생을 키우는 아이도 많았던 것이다. 『새의 선물』

我们村里有许多比我还小的孩子,在父母去地里干活时,也都照看弟弟妹妹,还要给他们做饭。『鸟的礼物』

(8) 근데 부대 앞에 있는 다방도 나 보다 훨씬 잘 알아. 『새의 선물』

可她对部队前面的茶馆比我还清楚! 『鸟的礼物』

중국어 ‘更’과 같이 ‘还’ 역시 한국어로 ‘훨씬’이라고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4개, 한국어 소설에선 3개로 총 7개로 나타났다.

3) 还-훨씬 더

(9) “读书好啊,一天不读书,比一个月不拉屎还难受。”『兄弟』

“독서는 참 좋은 겁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한 달 동안 똥을 안 썩 것 보다 훨씬 더 참기 힘들다 이 말씀이야.” 『형제』

(10) 镇文艺宣传队的规模比油麻地中学的还大,有三十几号人,借了粮站的一个大仓房排练场。『红瓦黑瓦』

삼십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진문 예선 전단의 규모는 유마디 중학교 보다 훨씬 더 컸다. 『빨간기와, 까만기와』

‘훨씬 더’ 역시 중국어 ‘更’과 마찬가지로 ‘还’에서도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총 2개로 나타났다.

4) 还-더욱

(11) 他知道支部书记是个心比铁石还硬的王八蛋,跟他要粮绝不是件轻松事情。『红高粱家族』

그는 지부 서기관 작자의 심리가 강철 보다 더욱 단단하고, 더러운 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인간을 찾아가 쌀을 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홍까오랑 가족』

(12) 我比那时候还小的时候就听说过：大队饲养场里的一头母猪成了精。『食草家族』

내가 그 시절 보다 더욱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이다. 양돈장의 암돼지 한 마리가 요정이 되었다. 『풀 먹는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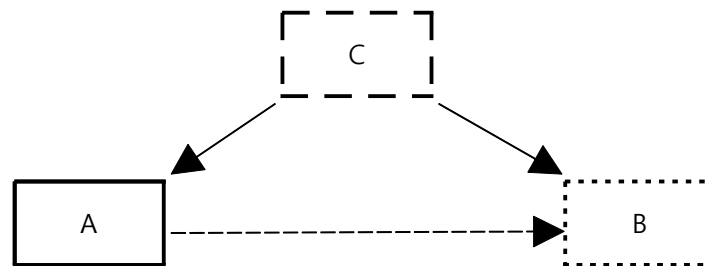
‘더욱’ 역시 중국어 ‘更’과 마찬가지로 ‘还’에서도 표현되었다. 원본 중국어 소설에서 총 2개로 나타났다.

3.2 두 가지 분석기준을 통한 의미 분석

위의 차등 비교문의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표현에 대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분석기준을 통한 의미 분석을 하려고 한다.

3.2.1 연결망 모형에 따른 의미 분석 - ‘더’, ‘훨씬’, ‘더욱’

陆俭明 (1980)¹⁰⁾의 연구에 따르면 ‘更’과 ‘还’ 둘 다 비교에 사용하지만 비유일 땐 ‘还’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위의 예문들을 비추어 볼 때, ‘更’과 ‘还’로 나누어 살펴본 바에 따르면, ‘还’를 사용한 중국어 차등 비교문이 비교와 더불어 비유를 나타낼 때 사용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어에선 중국어의 ‘更’과 ‘还’의 사용 유무에 상관없이, ‘더’, ‘훨씬’, ‘훨씬 더’, ‘더욱’ 등과 같이 다양하게 표현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한국어 표현의 다양성을 Langacker(1991b:271)¹¹⁾의 연결망 모형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1> 연결망 모형

A는 원형_{prototype}이고, B는 확장_{extension}이고, C는 A나 B가 활성화될 때마다 활성화되는 도식_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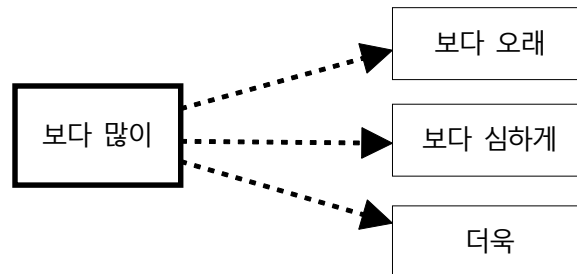
10) 沈家煊, 위의 논문, p.483 재인용.

11) 한국어 정도부사의 의미 연결망을 알아보기 위해 줄저(2017)의 한·중 차등 비교문 ‘비교결과’ 대비 연구에서 살펴보았던 Langacker의 연결망 모형을 본고 에서도 사용한다. 김동환, 위의 책, p.105 재인용. 줄저(2017), 위의 논문, p.196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chema이다.

범주의 구성원은 연결망에 있는 마디로서, 이런 마디들은 두 가지 유형의 범주화 관계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첫 번째 유형의 범주화 관계는 원형으로부터의 확장^{extension from the prototype}이다. 이런 확장은 $[A] \rightarrow [B]$ 로 나타낸다. 두 번째 유형의 범주화 관계는 도식에 대한 정교화^{elaboration} 관계이다. 이것은 $[C] \rightarrow [A]$ 나 $[C] \rightarrow [B]$ 로 나타낸다. 이 관계는 상세화 관계로서, $[C]$ 는 $[A]$ 나 $[B]$ 보다 덜 정교하고 덜 상세한 것으로 묘사된다.¹²⁾ 이처럼 단어는 그 개념이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는 다수로 대응하는 ‘의미 확장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¹³⁾

<그림1>의 연결망 모형에 근거하여 본고는 위의 예문 ‘更’과 ‘还’의 동시에 표현되었던 ‘더’, ‘훨씬’, ‘훨씬 더¹⁴⁾’ 그리고 ‘더욱’의 다의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먼저 ‘더’의 의미 연결망 모형을 살펴보자.



<그림2> ‘더’의 의미 연결망 모형

위의 <그림2>를 살펴보면 ‘더’ 의미의 원형은 ‘보다 많이’ 이고, 확장되어 사용하는 의미는 ‘보다 오래’, ‘보다 심하게’, ‘더욱’ 이다.¹⁵⁾ 원형이론은 인간 마음속에 범주 형성을 통제하는 두 가지 기본 원리가 있다고 단정한다. 첫째는 인지적 경제성의 원리^{principle of cognitive economy}이다. 이 원리에 따르면, 사람들은 경험하는 모든 자극들에 대해 개별적인 정보를 저장한다기보다는 유사한 자극들을 범주로 분류하여, 인지적 표상에서 경제성이 유지된다. 둘째는 인지된 세계 구조의 원리^{principle of perceived world structure}이다. 우리 주위 세계는 상관적 구조^{correlational structure}를 하고 있다. 예컨대, 날개는 모피나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능력보다는 깃털이나 날 수 있는 능력과 가장 빈번하게 함께 상기 된다. 이 원리는 인간이 범주를 형성하고 조직하기 위해 이러한 상관적 구조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두 가지 원리는 함께 인간의 범주화 체계^{categorization system}를 발생시킨다. 즉, 인지적 경제성은 범주가 형성되는 포괄성의 층위와 관련이 있고, 상관적 구조는 형성된 범주의 대표성이나 원형 구조와 관련이 있다. Rosch(1978)

12) 김동환, 위의 책, pp.105-106 참조.

13) 이선희, 「한중 신체어 ‘귀’의 의미 확장 대조 연구」, 『중국학』, 제65집, 2018.12, p.104 참조.

14) ‘훨씬 더’는 두 개의 부사가 나란히 쓰여 의미상으로 더 강조가 되며, 기본 원형의 의미는 사전에선 따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아래 ‘2’의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대한 의미 분석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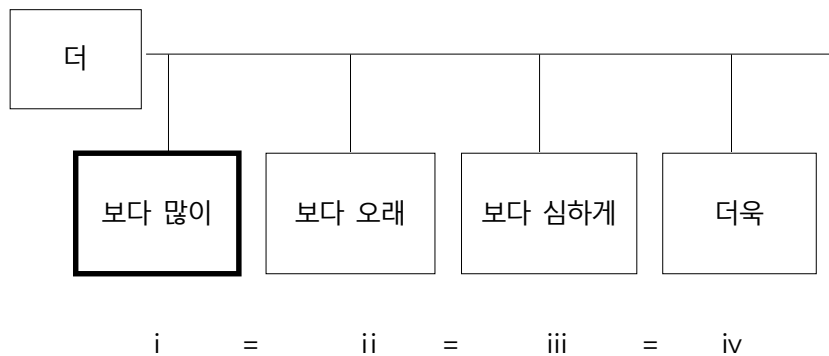
15) 이희승 감수,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2017, p.600.

는 이것으로 수평 차원과 수직 차원을 가진 범주화 체계가 발생한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림3> 범주화 체계

위의 <그림3>을 보았을 때 수직 차원은 특정 범주의 포괄성 층위와 관련이 있다. 특정 범주는 수직축 상에서 더 상위에 있을수록 더 포괄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평 차원은 동일한 포괄성 층위에서 범주의 구분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개와 자동차는 구분되는 범주이지만 동일한 상세성의 층위에서 작용한다.¹⁶⁾ <그림3>의 범주화 체계로 ‘더’의 의미 연결망을 보았을 때 수평 차원에서 원형이론을 논할 수가 있다.



<그림4> 수평 차원에서의 ‘더’의 의미 범주

16) 김동환, 위의 책, pp. 98-99 참조.

위의 <그림4>는 사전 속 의미 순대로 나열을 하였지만 ii, iii, iv 어느 것이나 i의 원형 자리에 와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 ‘더’를 사용할 때의 사용 빈도에 있어선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의미 범주화로 보면 i,ii,iii,iv 모두 동일 선상에서 원형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아래 ‘훨씬’의 의미 연결망 모형을 살펴보자.

정도 이상으로
많거나 적게

<그림5> ‘훨씬’의 의미 연결망 모형

<그림5>를 보면 ‘훨씬’의 원형의 의미가 ‘정도 이상으로 많거나 적게’¹⁷⁾로 확장된 의미는 없다. 아래 ‘더욱’의 의미 연결망 모형을 살펴보자.

갈수록 더 심하게.
점점 더.

<그림6> ‘더욱’의 의미 연결망 모형

<그림6>의 ‘더욱’ 역시 위의 ‘훨씬’과 마찬가지로 원형의 의미 ‘갈수록 더 심하게, 점점 더’¹⁸⁾에서 확장된 의미는 없다. 즉, 위의 ‘더’, ‘훨씬’, ‘더욱’의 의미 연결망 모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더’, ‘훨씬’, ‘더욱’ 중 그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정도상의 표현되는 크기에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수평 차원에서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더’ ‘훨씬’ ‘더욱’

<그림7> 수평 차원에서의 ‘더’, ‘훨씬’, ‘더욱’의 연결망 모형

<그림7>을 보면 알 수 있듯 ‘더’, ‘훨씬’ 그리고 ‘더욱’ 모두 같은 범주에서의 원형으로 나

17)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2017, p.2690 참조.

18) 『민중 옛센스 국어사전』, 2017, p.604 참조.

타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도상의 차이가 있을 뿐, ‘더’, ‘훨씬’ 그리고 ‘더욱’ 그 어느 것의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국어의 ‘更’과 ‘还’를 제외하고 한국어의 ‘더’, ‘훨씬’, ‘더욱’ 표현에 상응하는 다른 정도부사를 알아보면 ‘很’, ‘非常’, ‘太’, ‘最’, ‘挺’ 등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부사들은 차등 비교문 안에선 사용할 수가 없다. 赵金铭(2006)¹⁹⁾은 차등 비교문 안 ‘很’, ‘十分’, ‘太’, ‘非常’, ‘特别’, ‘极’, ‘最’ 등의 정도부사를 사용한 문장은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만들어 낸 문장이자 비문이라 하였다.

- 예) * (1) 要知道, 小鸟的寿命比人很短。
 * (2) 她比我说得很好。
 * (3) 瘦子女人每个天越来越漂亮, 她比我很漂亮。
 * (4) 他比一般中国人高得很。

위 예문 (1),(2),(3),(4) 모두 비문이다. 이러한 비문을 만든 원인 중 하나가 중국어 학습자들의 모국어 영향이라고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중국어 차등 비교문 안의 정도부사 사용은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위의 한국어 각각의 정도부사 의미 연결망 모형 그리고 수평 차원에서의 원형이론을 살펴본 결과 차등 비교문 안의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에는 표현에 있어 정도상의 크기에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도부사의 표현이 가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 ‘훨씬’, ‘더욱’ 외의 또 다른 한국어 차등 비교문 속 정도부사 표현을 위에서 정리한 예문에서 보면 ‘좀더’와 ‘더더욱’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이 절에서 살펴본 원형이론이 아닌 정도부사 사용 순서와 관련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2.2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따른 의미 분석 - ‘좀더’, ‘더더욱’

‘좀더’, ‘더더욱’은 앞의 1 에서 정리한 예문에서 중국어 차등 비교문 ‘更’과 ‘还’의 표현에 중복되지 않게 ‘更’에만 사용되었다.²⁰⁾ 그러나 ‘좀더’ 나 ‘더더욱’ 역시 본고에서 찾은 소설 속엔 ‘更’에만 표현되었지만, 사실 ‘更’ 이나 ‘还’ 둘 다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절에선 위에서 살펴본 원형이론이 아닌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 순서를 통한 의미 분석을 하려고 한다.

먼저 ‘좀더’와 ‘더더욱’을 살펴보면, ‘좀더’는 ‘조금’의 준말인 부사 ‘좀’과 ‘더’로 이루어졌고, ‘더더욱’ 역시 부사 ‘더’와 ‘더욱’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좀더’의 순서를 바꾸어 ‘더좀’으로 표현하면 이것 역시 사용 가능한 표현이다. ‘더더욱’ 또한 그 순서를 바꾸면 ‘더욱더’로 한국어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한국어의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대해 崔健(2010)²¹⁾은 한국어의 증량(增量) 부사는 ‘대량(大量) 부사’, ‘중량(中量) 부사’, ‘소량(小量) 부사’,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19) 赵金铭, 「从类型学视野看汉语差比句偏误」, 『世界汉语教学』, 第4期, 2006, pp.67-74 참조.

20) ‘더한’과 ‘보다도 더’도 위의 1 에서 정리한 예문에서 볼 수 있었지만 본고는 정도부사로만 범위를 한정한다.

21) 崔健, 『语言对比论文集』,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2, p.151 참조.

훨씬	더	좀
	更 / 还	稍微

또 이렇게 나누어진 정도부사는 같이 연이어 사용함에 있어 순서가 있다고 하였다. ‘대량(大量)부사’와 ‘중량(中量) 부사’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고, 그 순서는 ‘대량(大量)부사’ > ‘중량(中量) 부사’이며, 중량(中量) 부사와 ‘소량(小量)부사’ 역시 연이어 사용 가능하며, 그 순서는 ‘소량(小量)부사’ > ‘중량(中量) 부사’이고, ‘대량(大量)부사’와 ‘소량(小量)부사’는 같이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²²⁾

본고는 崔健의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 순서에 동의하지만, ‘중량(中量) 부사’와 ‘소량(小量) 부사’의 연이은 사용에 대해선 ‘소량(小量) 부사’ > ‘중량(中量) 부사’ 뿐만 아니라 ‘중량(中量) 부사’ > ‘소량(小量) 부사’도 가능함을 여기서 말하고자 한다. 이에 ‘더’를 살펴보면, 한국어에서 ‘좀더’ 만큼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 그냥 보아선 틀리게 표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래 예문을 통해 그 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예)²³⁾

- (1) 사실 캐고 보면 더 줄 일찌기 유념해서 알아보아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 (2) 이환수 씨의 건강은 전보다도 더 줄 나빠진 듯이 보였다. 눈에 정기가 없고 두 볼이 꺼져 있었다.
- (3) 몸도 몸이려니와, 돌아가고 있는 판세에 대한 가늠이 제대로 서지 않아서, 한동안 고향에 침거하며 더 줄 관망할 태세였다.
- (4) 최근에 와서 이주민들과 도망군들이 일제 관헌의 눈으로부터 더 줄 멀리 피해 가기 위해 울짙을 박고 거적을 치기 시작한 것이 회양동 개척의 실머리가 되었다.
- (5) 너 안 되겠구나, 더 줄 맞아야 바른대로 볼겠어?
- (6) 한 잔 술에 포근히 풀린 문오는 더 줄 몸과 마음을 확 풀어 보고 싶었던 것 이다.
- (7)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도 읽으며, 편지가 배달되면 편지도 보고, 새로이 잡지가 나오면 잡지도 뒤적이며, 그 위에 더 줄 여가가 있다면 단행본(單行本) 같은 것도 읽는다.

위의 예문들을 통해 한국어에서의 ‘더’ 즉, ‘중량(中量) 부사’ > ‘소량(小量) 부사’ 또한 연이은 사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崔健은 이러한 연이은 정도부사의 사용은 거리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연이어 사용한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폭이 가까우면 연이은 사용이 가능하고,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폭이 멀면 연이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면 ‘더’는 어디에 속할까? 崔健의 정도부사 순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중량(中量)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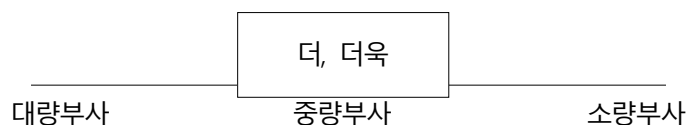
22) 앞의 1)에서 언급한 ‘훨씬 더’ 역시 崔健의 ‘대량(大量) 부사’와 ‘중량(中量) 부사’는 연이어 사용할 수 있다는 일치한다.

a. 동생이 형보다 훨씬 더 크다.	a. 동생이 형보다 좀 더 크다.	a. *동생이 형보다 훨씬 좀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더 훨씬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더 좀 크다.	b. *동생이 형보다 좀 훨씬 크다.

崔健, 위의 책, p.151 참조.

23) 아래 예문은 네이버 사전에서 검색.

사'로 보려고 한다. 어감의 차이에 있어선 '더욱'이 '더'보다는 조금 강하게 느껴지지만 '대량(大量) 부사'로 놓기엔 의미적으로 약해 '더'와 같은 동일 선상인 '중량(中量) 부사'에 두기로 한다.



이에 '중량(中量) 부사'와 '중량(中量) 부사' 간의 즉, 양(量)의 폭이 '0'인 동일 선상에선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이 가능할까? 라는 물음에 대해 손춘섭²⁴⁾의 정도성의 크기를 배당하는 목록을 한번 살펴보자.

손춘섭(2001)은 정도 구문의 정도성의 크기를 배당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정도부사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 a. 가장 높은 등급을 배당하는 것들: '몹시/무척/매우/아주/가장'
- b. 높은 등급을 배당하는 것들: '꽤/꽤/꽤/한결'
- c. 낮은 등급을 배당하는 것들: '꽤/제법/좀'

위의 정도부사의 목록은 학자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특히 a와 b의 분류 기준은 때로는 a가 b에 속하고, b가 a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a가 c 그리고 b가 c로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본고는 보편적 기준 하에 a와 b가 같다는 전제를 놓고 보았을 때, 같은 배당에서의 정도부사의 연이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a의 '매우 아주' 또는 '아주 매우', '몹시 아주' 또는 '아주 몹시', b의 '한결 꽤', c의 '꽤 좀', '제법 좀' 또는 '좀 제법' 등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a, b, c 각각의 같은 등급에 해당하는 정도부사 모두가 다 연이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동일 선상, 다시 말해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폭이 '0'에 있어서의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의 차등 비교문 안의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에 있어 알 수 있는 것은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격차 즉,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본고에서 살펴본 연이은 정도부사가 차등 비교문 안에서 표현될 때 거리 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문이 되어 원형적 차등 비교문²⁵⁾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대상 간의 비교 정도 치를 극대화하거나 반대로 극소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이은 정도부사가 차등 비교문 안에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반드시 양(量)의 격차를 고려해야 하며, 그중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여 본고에서 밝힌 '중량(中量) 부사' > '소량(小量) 부사' 그리고 양(量)의 폭이 '0' 일

24) 손춘섭, 「정도부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9집, 2001, p.118 참조.

25) '원형적 차등 비교문'은 김동환의 '원형적 타동 구문'이라는 표현에서 응용되어 사용하였다. 여기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은 일반적인 차등 비교문 형식을 말한다. 즉, 본고의 연구와 빗대어 말하면 연이은 정도부사가 차등 비교문에 사용될 때 양(量)의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사용하면 비문으로 '비원형적 차등 비교문'이 된다. 김동환, 위의 책, p.109 참조.

때 동일 선상에서의 연이은 정도부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17권의 한·중 현대소설 텍스트의 차등 비교문에서 ‘更’과 ‘还’에 상응하는 한국어의 다양한 정도부사 표현에 있어서의 그 원인을 알아내고자 두 가지 연구 방법을 살펴보았다.

첫 번째로, 인지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 중의 하나인 원형이론 중 Langacker 의 연결망 모형 그리고 수평 차원에서의 원형이론을 살펴본 결과 한국어 정도부사 사용에 있어서 ‘더’, ‘훨씬’, ‘더욱’ 중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정도상의 크기에만 차이가 있기에 차등 비교문 안에서 구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국어 정도부사를 연이어 사용함에 있어 그 순서를 살펴보면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형식에 대해 고찰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정도부사 간의 양(量)의 격차 즉, 거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일 연이은 정도부사가 차등 비교문 안에서 표현될 때 거리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비문이 되어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뿐 아니라 두 대상간의 비교 정도치를 극대화 하거나 반대로 극소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이은 정도부사가 차등 비교문 안에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반드시 양(量)의 격차를 고려해야 하며, 그중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여 본고에서 연구한 ‘중량(中量) 부사’ > ‘소량(小量) 부사’ 그리고 양(量)의 폭이 ‘0’ 일 때, 동일 선상에서 연이은 정도부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본고의 연구를 통해 앞으로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차등 비교문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을 잘 숙지 시켜 원형적 차등 비교문 형식을 잘 구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동환, 『인지언어학과 개념적 혼성이론』, 박이정, 2013.
崔 健, 『语言对比论文集』, 北京语言大学出版社, 2012.

[논문류]

- 손춘섭, 「정도부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고찰」, 『한국어 의미학』, 제9집, 한국어의미학회, 2001.
심 도, 「한·중 비교성 정도부사의 대비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논문, 2011.
이선희, 「한중 신체어 ‘귀’의 의미 확장 대조 연구」, 『중국학』, 제65집, 대한중국학회, 2018.
이은민, 「汉韩差比句对比研究」, 北京师范大学 博士论文, 2017.
최중식, 「한중 비교표현의 대조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논문, 2017.
沈家煊, 「跟副词“还”有关的两个句式」, 『中国语文』, 第6期, 2001.
赵金铭, 「从类型学视野看汉语差比句偏误」, 『世界汉语教学』, 第4期, 2006.

[사전류]

- 이희승 감수, 『민중 엡센스 국어사전』, 2017.
네이버 사전 [https://ko.dict.naver.com]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编, 『现代汉语词典-第6版』, 商务印书馆, 2012.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更, 还, 程度副词, 原型理论, 网络模型, 原型差比句, ‘量’上的差距		
	영문	更(gèng), 还(hái), Degree Adverb, Prototype Theory, Network Model, Prototypical Comparative Sentence, Quantity Difference		
<div>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Meaning of Degree Adverbs in Modern Korean which Corresponding to ‘更(gèng)’ and ‘还(hái)’ in Disparity Sentence between Modern Korean-Chinese</div> <div>Lee, Eun-Min</div> <p>This study has focused on various degree adverb expressions in Korean language corresponding to “更(gèng)” or “还(hái)” in comparative sentences in 17 volumes of modern Korean and Chinese novels. Meaning network of each degree adverb in Korean language as well as prototype theory in the horizontal dimension were analyzed based on Langacker's Network Model, a prototype theory among research methodology of cognitive linguistics. It is concluded that Korean degree adverbs only have differences in volume expressed, which makes variable expression of degree adverbs. In addition, on account of successive usage of degree adverbs in comparative sentences, the distance, in other words, quantity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adverbs is important. If the difference is not considered, the phrase becomes incorrect and cannot have a prototypical differential comparison effect. Furthermore, neither maximization nor minimization of the comparison quantity between the two targets is achievable. Therefore, for successive usage of degree adverbs to achieve its prototypical comparative effect in differential comparative sentences, consideration of quantity difference is compulsory. And it is found in this study that on the same line in case of ‘medium quantity adverb’ > ‘small quantity adverb’ and quantity difference is ‘zero’, successive usage of degree adverbs is possibl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은민 / 李殷旻 / Lee, Eun-Min		
	소 속	창신대학교 중국비즈니스학과		
	Em@il	eunminlee9@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9년 08월 20일	심 사 일	2019년 08월 26일
	수 정 일	2019년 09월 09일	게재확정일	2019년 09월 17일